

마음자리는 본래 무심이다

이 하나의 문(門)을 얻는 것을 이름 하여 무위법문(無爲法門)이라 한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모양이나 색깔로 드러내 보일 수 없어서 다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묵연히 결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법문을 무위법문이라 한다. 반면에 주객의 양변이 갈라져서,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는 것은 유위법(有爲法)이다. 세상은 대부분 주관이 작위를 일으켜 대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지만, 불법은 무위법이라서 본래 부처인 한 마음에 묵연히 결합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 홀연히 깨쳐 체득해야 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진다.

함이 없는 무위법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본래 무심인 줄을 알아서 모든 작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자리는 본래 무심이라서 따로 무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저절로 무위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무위법이 익으면, 비록 함이 없지만 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매사가 순리대로 임응등등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중생이 이 말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음알이를 일으켜 무심을 만들려고 하면, 그럴수록 본래 무심과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런 줄 알고 헛노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벽 스님은 다만 무심을 알아 홀연히 깨쳐 체득해야 하지, 말을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하면 벌써 방향이 반대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분별하고 취사(取舍)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적 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분별하는 마음과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생기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변견(邊見)에 떨어져 불이법의 중도에 어긋나게 된다. 마음이 무심해져야 비로소 도를 배울 분(分)이 있는 것이다.

배후가 물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어찌 없애고 하십니까?"

배후는 만들어진 그림자에 꼬달려서 '있다 없다' 하는 양변에 걸려있다. 일어나는 망상은 허망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나 근본을 모르면 상(相)에 떨어져서 허망한 그림자에 매달려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구름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건 허공은 언제나 텅 비어 여여하다. 빈 바람의 성품을 볼 줄 모르면, 그만 상에 나가 떨어져 있다 없다는 시비를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배후가 물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어찌 없애고 하십니까?"

배후는 만들어진 그림자에 꼬달려서 '있다 없다' 하는 양변에 걸려있다. 일어나는 망상은 허망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나 근본을 모르면 상(相)에 떨어져서 허망한 그림자에 매달려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구름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건 허공은 언제나 텅 비어 여여하다. 빈 바람의 성품을 볼 줄 모르면, 그만 상에 나가 떨어져 있다 없다는 시비를 그칠 수 없는 것이다.

수불 스님의 안릉록 선해 (13)



범어사 주지

불법은 본래 무위법

무심 알아 홀연히 깨쳐야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변견(邊見)에 떨어져

불이법의 중도에 어긋난다

망상은 실체가 없지만

근본 모르면 상(相)에 떨어져

허망한 그림자에 매달려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망념을 알아챘을 때,

그 자각이 바로 부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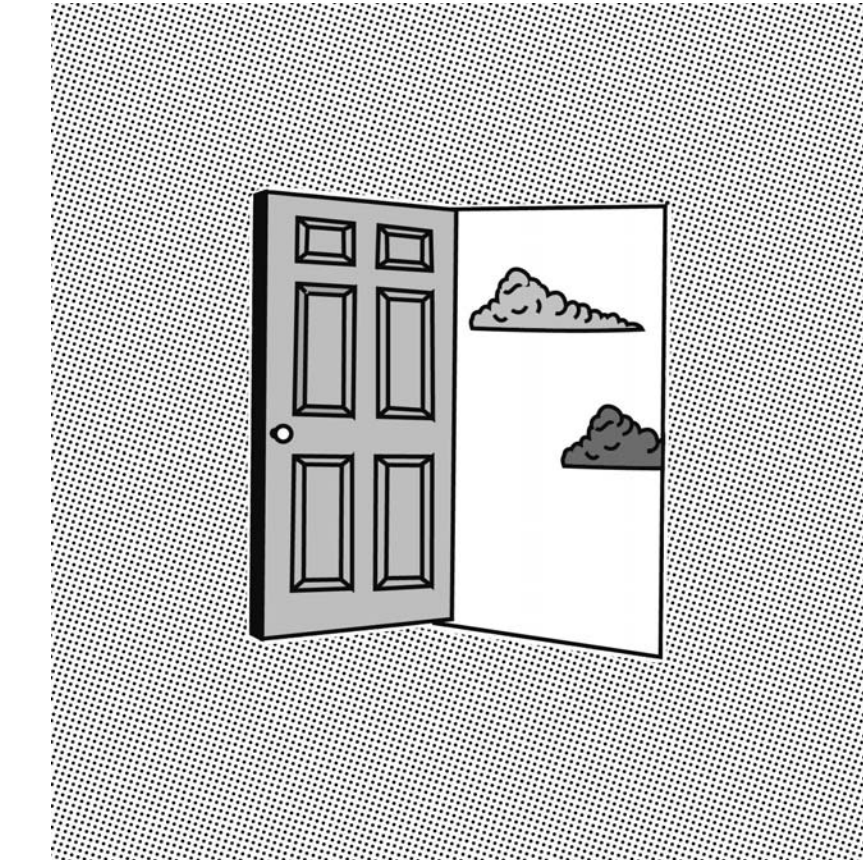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황벽 스님이 말했다.

"망념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허망하게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인식하려 하는가?"

본래 부처인 줄 깨닫는 순간에, 허망한 모습들이 본래 없던 것임을 알게 된다. 늘 실체가 분명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고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말로 하자니까 이런 저런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을 언하에 알아먹고 말없이 끄덕끄덕 하고 그쳐야 한다. 알음알이로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니, 끝없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식과의 문답에선 모르면 즉시 의심으로 전환하여 그것을 소화내내려고 참구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 오랫동안 순숙해져서 깊어지고 넓어지면, 스승 말의 낙차가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공부법이 후대에 간화선으로 정형화되게 되는 것이다. 간화선에선 의심이 생명이다. 의심이 의정을 거쳐 의단으로 익어 터지면, 화두의 낙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배후가 물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식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말을 배후가 대신 해주었다. 이런 질문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 과정에서 한 번쯤 품었을만한 것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데, 망념은 왜 일어나는지? 망념이 일어날 때, 본래 부처는 어디서 될 하고 있는지?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챘을 때, 그 자각이 바로 부처다. 만약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다."

교학에서는 설명하기 위해 번뇌와 보리를 배대시키고, 중생과 부처를 배대시키지만, 선(禪)에서는 번뇌가 바로 보리요,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직지할 뿐 애써 설명하지 않는다. 망념 있는 곳에 부처 있고, 망념이 없으면 곧 부처도 없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무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명이 다함도 함께 없다. 언제나 양변을 함께 막아서, 불이(不二)의 당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중생들이 한없이 많으나 다 건지겠습니다

(천수경)

이룰 수 없는 꿈

중생무변사원도(衆生無邊誓願度). 실제로 이보다 더 울림이 큰 말씀도 드물 것이다. 중생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는 헤아릴 수 있지만, 중생들에게는 그것이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에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생의 범위는 가히 무한하다. '중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 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던가. 그렇기에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눈에 자라고 있는 나락의 수를 헤아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수를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 또 있다면 그 수는 더욱더 증가하고 만다.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생명든 생명 있는 존재라면 다 중생이다. 시간 역시 무한하므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중생이 한이 없으나 다 제도 하겠다"는 이 서원은 사실 모순어법(矛盾語法, oxymoron)에 가깝다. '중생'이라는 말과 '제도'라는 말은 동시에 자리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의 중생을 다 제도하셨던가? 아니다. 못하셨다.

그렇다. 서원은 불가능한 꿈, 이룰 수 없는 희망을 그리워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비현실(非現實)이다. 현실에서는 비현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비현실을 끌어안고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 속에서, 비로소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것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추구하기에, 거기에는 성스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종교가 현실적이기만 하고 만다면, 현실은 희망이 없다.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들에게는 미래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중생불교

30여년 전 어느 수업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불교는 국경이 없지만,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맞는 말인 것이다. 불교인에게도 여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교인에게는 한국여권이, 중국의 불교인에게는 중국 여권, 일본의 불교인에게는 일본 여권이 있다.

게는 일본 여권이 있다.

하지만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밖에는 당연히 여권이 다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방침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그 국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불교의 가르침은 버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전쟁에 협력한 일본의 불교인들 역시 참회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부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한 국가들은 때로는 전쟁을 한다. 그것이 역사다. A국의 불자들은 A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고, B국의 불자들은 B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 국경이 있는 불교인/국민으로서서는 어쩔



그림 · 박구원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경이 없는 불교인/중생으로서의 그 가르침/이상을 배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고 말해버리는 당당함 속에서, 우리는 불교인의 고뇌나 양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데서, 불교인은 '국민'으로 강요되는 상황(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중생'으로서의 노력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고만 말해서는, 가령 전쟁이 끝난 뒤라도 우리나라의 전사자들을 위해서만 연불을 할 뿐 적국의 전사자들을 위해서는 연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군도 적군도 다 중생일 뿐이다. 중생으로서 전쟁에 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불교, 적을 위해서도 연불하는 불교, ...이것이 중생불교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증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을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 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테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百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당경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寒)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찌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반에서 사 갔으면,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머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x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